



6월11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땅은품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종철	팀장	김영석	☎	286-6430
----	--------	----	-----	----	-----	---	----------

전남도, 민간협업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신청 전국 1위

- 6.9.현재 전국 신청 1,274개소 중 전남 1,021건 80% 점유 -

전라남도가 전국 첫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김치협회)와 협업으로 공동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 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6월10일 현재 전국 신청량 1,274개소 중 전남이 전체 80%에 해당하는 1,021개소에 달해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9월까지 목표로 하는 5,000개소의 20%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북 42개소, 경기 41, 충북 19, 충남과 서울·광주가 18개소, 전북 16개소, 부산 15개소 등이다.

전남은 지난해 말까지 도내 일반 식당 중 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곳은 담양 1개소에 불과했으나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1,021여 개소가 신규 지정 신청을 했다.

이처럼 전남이 신청이 많은 것은 전국 첫 민간협업형 모델을 만들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남도와 시군이 홍보와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심사와 심의,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를, 그리고 도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등이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100% 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외식업소와 학교 등에서는 시군 농업부서나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음식점 밖에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를 확대하는 한편, 김치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김치 내수 소비 및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김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